

# 건축=밥인가?

Is architecture flesh and blood the means of earning bread?

이정근 / 종합건축사사무소 우리계획  
by Lee, Jeong - Keun

가끔 공상이 떠오르곤 한다. 그 공상이란 건축을 모두 때려치고 자유로워진 나를 생각하는 것이다. 건축으로부터 해방된 내가 스코트랜드의 원시적인 풍경속에 자전거를 타고 내 달는 것이다. 내 몸동아리를 온통 옥죄고 있는 건축의 세계를 떠나서 절간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생각하며 시장바닥에서 내가 구루마를 끄는 장면이 문득 동경으로 다가온다.

내가 만약 건축을 하지 않고 경제학이나 사회인류학 또는 과학철학을 전공하였다면 지금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마찬가지로 그 전공의 세계를 떠나는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 한정된 시공을 점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떠나고 싶은 것, 어떠한 것의 성취를 위해 매달려 있으면서도 그 일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 어떠한 인간관계에 매여 있으면서도 그 관계고리를 끊어버리고 싶은 것, 이렇게 사상의 양면성에 갈등하는게 인간의 속성인가 보다. 어떻게 보면 갈등이란 살아있음의 징표인지 모른다.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대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 나름의 갈등을 가진다. 수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직업의 수행 과정에서 그것에 따르는 갈등을 수반한다. 또 같은 직종이라도 문화권에 따라 그 사회의 사회적 통념과 사회생활의 관행에 따라서도 그 갈등은 다르게 작용할지하다. 사회마다 그 갈등을 해소하는 독특한 기제를 마련하고 있다. 갈등이 살아있음의 징표라면 그 갈등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회 문화의 성숙도를 가려준다고 하겠다.

건축중에서도 설계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갈등이 있으리라고 본다. 그 중에서도 첫째는 뭐니뭐니해도 먹고 사는 일이다. 일이 항시 많아서 일을 주체 못하는 복받은 건축쟁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월급날이 가까워 오면 직원들 월급을 대기위해 이 궁리 저 궁리를 해야 한다.

직업인으로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이 밥그릇과 직결되어 있다는 엄연한 현실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든다. 어느 시인이 말했듯이 역시 밥이 하느님이다. 그러나 밥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건축인으로서 밥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해도

좋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시인의 뜻한 바는 밥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도 정당화 된다는 것 보다는 자기 밥을 정당하게 확보하여야 하며 남의 밥을 부당하게 빼앗지 말며 남의 밥에 재 뿌리지 말아야 하며 나의 밥그릇을 떼떽하게 차지할 수 있는 정도의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보리라. 밥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환경 속에서 설계를 할 수 있으면 좋은 작품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밥이 하느님이라는 말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최대한 수행함으로써 고귀한 밥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일진대, 밥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에서 나의 직분을 마음껏 발휘해 보겠다는 것은 밥과 직분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밥걱정은 전혀 않고 창작하는 즐거움만 누리겠다는 것은 산고의 고통을 쏙 빼버리고 아이를 가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학교에서는 건축은 예술이다 또는 건축은 과학이라고 가르치지 건축은 밥이다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에서 건축을 가르칠 때에는 건축가는 Master Builder 이며 온갖 분야의 직능인들을 지휘하는 교향악단의 지휘자와 같다고 누누히 강조한다. 그래서 상아탑을 떠나서 건축설계에 종사하며 건축가라는 직업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필요에 용해 전문가로서 봉사해야 하는 봉사자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짧은날에 겹겹이 쌓아놓은 환상의 껍질을 벗겨내야 하는 아픔을 경험한다. 더더군다나 건축이 곧 밥이다 하는데 생각이 미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흘려보낸 후의 일이 된다. 이것은 건축이 지극히 현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면서도 동시에 현실을 뛰어 넘는 발상을 요구한다는 건축의 보편적인 특성과 동시에 한국의 건축교육 풍토가 가지고 있는 비현실주의적 허구성과도 무관하지 않으리라.

이즈음 건축사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있는 우르파이 라운드, 건축용역 시장의 개방, 건기법에 의한 감리 및 설계용역의 문제, 연서감리와 건축의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문제, 법인 및 비법인 사무실의 문제 등등은 모두 그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건축의

“

비록 건축인들이 왜곡의 정도가 상식의 틀을 벗어난 건축관행에 불감증이 걸려 있다지만 우리 건축계의 많은 인사들이 자신들의 불감증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한발 두발 빠져서 여기까지 왔지만 더 이상은 전문가로서의 영역을 포기해야만 할 정도의 막바지 선에까지 이르렀음이 보이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영역 확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건축인들에게 자각을 불러 일으켰다면 우리에게 아직 시간은 있다.

”

질의 향상과 대사회 건축 서비스의 향상, 더 나아가서 한국 건축문화 발전의 촉진, 건축위법의 효율적인 방지, 등등의 명분뒤에는 엄연히 밥그릇을 얼마만큼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밥그릇의 싸움이라는 인간이라는 동물의 원초적인 생존본능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다. 기왕에 벌여 놓은 밥그릇을 더 차지하겠다는 기득권을 향유하는 무리들, 부당하게 빼앗겨 왔던 밥그릇을 다시 찾아야겠다는 무리, 또 앞으로 내 밥그릇을 위협하게 될 예상되는 가상 적에 대한 방비와 경계 등등이 집단이기심으로 뭉쳐져서 작용한다.

모든 명분을 건어치울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은 개체의 생존을 위한 먹이 확보와 집단의 영속을 위한 종족유지 본능이 작용하는 동물의 세계를 보는 듯하다.

인간의 세계가 동물의 세계와 다른 점은 동물이 완전히 힘으로 밥그릇의 배분을 결정하는데 반해 인간은 밥그릇 차지를 위한 싸움을 제도화 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제도를 운용하는 양태는 사람이 제도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쓴 동물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람이 동물과 신의 중간에 위치한 존재인 만큼 이런 것을 인간적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갈등을 순화하기 위한 기제가 사회마다 다른 제도로 정착된 모습이 바로 그 사회 문화의 한 단면이라 할 것이다.

인간세계에서 밥그릇을 향한 집단적 갈등의 해소는 특정한 집단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편향해서 제도화 되기가 일쑤이다. 갈등해소의 방법을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도화 할때 그 제도 아래에서 밥을 위해 만들어지는 건축은 뒤죽 박죽이 되게 마련이다. 갈등의 해소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공평하고 사사로운 이해보다는 건축인 집단의 먼 장래를 발전적으로 약속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질 때 밥그릇 싸움의 창조적인 승화가 가능한 것이다. 누군가가 밥그릇을 독점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기여없이 왜곡된 제도의 그늘 아래서 땀흘리지 않고 쉽게 밥그릇을 차지하겠다는 발상은 불식되어야 한다. 밥을 서로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건축인 집단 구성원들이 창조적인 땀을 흘리고 나서 공평한 제도 아래서 응분의 밥그릇을 나누는 것이다.

직업인의 직분이란 응분의 댓가로 밥그릇을 차지할 수 있는 수단임에 틀림없다. 아름다운 말로써 아무리 감싸도 인간생존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건축생성의 장에서 밥그릇을 가운데 놓고 벌어지는 갈등의 해소를 위한 장치로서의 제도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좋은 건축이 만들어지도록 갈등의 해소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건축에 앞서 밥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밥은 값진 것이어야 하고 응분의 몫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하면 좋은 건축을 만들어내게 할 수 있는가에 밥그릇에 대한 갈등의 해소 방안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모순된 구조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쪽에서는 이 사회가 자유경쟁 시대이고 적자생존의 원리가 삶의 세계를 주재하는 한 사람은 세상은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할지 모른다. 우리사회는 자유경쟁의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다. 그러나 자유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경기의 틀이 공명정대하고 그것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경기의 틀이 왜곡되어 있거나 공정하게 되어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구색만 갖추고 실제로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 사사로운 동기에 좌우된다면 그러한 자유경쟁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 왜곡된 틀이나 왜곡된 운용체제에서의 적자생존이란 그 왜곡된 구조에 얼마나 적절히 적응하는가 또는 그 왜곡 자체를 얼마나 잘 이용하는가 하는 척도일 따름이다. 비록 건축인들이 왜곡의 정도가 상식의 틀을 벗어난 건축관행에 불감증이 걸려 있다지만 우리 건축계의 많은 인사들이 자신들의 불감증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한발 두발 빠져서 여기까지 왔지만 더 이상은 전문가로서의 영역을 포기해야만 할 정도의 막바지 선에까지 이르렀음이 보이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영역 확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건축인들에게 자각을 불러 일으켰다면 우리에게 아직 시간은 있다.